



1004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가 11일 오전 수사관과 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연행되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보석 논란’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63일만에 결국 재구속

교비 등 1004억 횡령 혐의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던 보석으로 풀려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가 결국 63일만에 재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9시40분께 전남대병원 입원해 있는 이씨를 연행했다. 이씨는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보호자와 이동해 검찰 차량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이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되고 지난 10일 결정 등분을 받아 곧바로 재수감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보석 청구가 기각된 서남대 총장 등 관련 피고인 3명도 이날 오후 재수감했다. 이씨

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고등교육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심장 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7일 이씨의 보석을 허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등분을 받아 곧바로 재수감 절차를 밟고 대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이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인도 점령 2만볼트 변압기 “겁난다”

광주 개폐기 등 3326대... 한전 “점용료 냈다” 뒷집

비좁은 보도를 차지한 변압기가 시민들의 보행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전 전력측은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개폐기(가로 2m·세로 1.5m·높이 1.5m)는 ▲동구 536대 ▲서구 1122대 ▲남구 97대 ▲북구 665대 ▲광산구 906대 등 3326대에 달한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수완지구 등 신도시에 설치된 전체 변압기·개폐기(1088대) 가운데 83.3%(906대)가 인도에 위치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형편이다.

광산구 신창동 부영 3차 아파트와 호반 2차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통행이 잦은 주변 인도를 약탈한 수십여

개의 변압기·개폐기 때문에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학생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이면 시설물을 피해 차도로 내려오거나 어깨를 부딪치며 인도를 걷는 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2만29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통과하는데 따른 불안감도 감수해야 한다. 변압기 위에 광고성 전단지나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경우도 많아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인도에 설치된 개폐기의 경우 대당 54만6000원, 변압기는 대당 29만1000원 수준의 연간 점용료를 자치단체에 내고 있는데, 전기 이용에 꼭 필수 장비로 도시계획 과정에서 위치가 확정돼 있었던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내 곳곳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한전 관계자는 “전기공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설치 위치를 찾아 보면 보도 위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했다.

필수 공공시설로 점용료를 내고 설치했다는 점을 내세워 보행권 침해를 감수하는 시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전기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변압기 등 전기공급시설 때문에 인

도를 피해 차도를 걷는 위험을 감수하는가 하면, 고압전류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인도에 설치해온’ 방식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자치단체, 개발시행사 등과 협의해 보행자 통로가 아닌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변압기와 개폐기 설치 불가피하다”며 “고압이 흐르지만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과학적 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야간 학생 감시 책임집니다” 여행사들, 수학여행 수주 백태

수학여행을 맡겨주시면 ‘야간 감시’ 직원이 문화해설사를 보내드립니다.

봄 날씨가 완연해지면서 수학여행기에 접어들자 광주지역 여행사들이 차별화된 옵션을 내놓고 특수 잡기에 나섰다.

경기 침체로 여행객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수학여행은 놓칠 수 없는 큰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업체들은 특별한 조건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삼반기에 수학여행을 계획한 곳은 ▲초등 100개교 ▲중등 71개교 ▲고등41개교 등으로 총 212개교에 달한다.

광주지역 각 학교는 대부분 2~3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한 뒤 입찰을 통해 적합한 여행사 선정에 나서고 있다. 예전과 달리 수학여행 장소·일정 외에 학교급의 세부 요구사항까지 덧붙이는 게 특징이다.

북구 빛고을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8일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입찰 공고를 냈다. 학교 측은 ▲유스호스텔급 숙박 시설 제공 ▲학생 개별적으로 제주에서 생산한 생수를 1일 1병씩 공급할 것 ▲1식5찬 이상, 생선과 육류를 1일 2회이상 포함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여기엔 28개 여행사가 물었다. 다른 학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일정표를 구성한 상황이다.

여행사 측은 이와 별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요청이 없어도 문화해설사를 차량마다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청, 자기자랑 사회자로 내세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사를 대신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경비업체 인원을 투입, 학생들의 무단 외출을 단속하게 하는가 하면 아침에 깨워주는 ‘모닝콜 서비스’를 프로그램에 넣는 곳도 있다는 게 여행사측 설명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중학생이 장애 초등생 성폭행 미수 암매장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중학생이 경찰에 잡혀왔다.

인천 서부경찰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납치,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인천 모중학교 3학년 A(16)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B(12·초등학교 5학년)양을 납치했다. 지적장애 3급의 B 양은 별다른 저항을 못 한 채 A군의 손에 이끌려 갔다.

A군은 인근 상가 건물 2층 복도로 B양을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B 양이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군은 이어 ‘휴눈이를 허러 가자’며 인근 문방구에서 삼을 산 뒤 초등학교에서 500m가량 떨어진 논으로 B 양을 데려갔다. A군은 삼으로 구멍을 파고 B양을 눕게 한 뒤 얼굴에 덮은 가방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휴눈이를 하던 중 B양이 반발로 말해 순간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군과 B양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닐 당시 특수학급에 함께 편성돼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남뉴스

노인 등친 사기 여행사

11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구례군 산정면 일대에 사는 안모(71)씨 등 71명은 여행사 대표 A(40)씨에게 85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이날 중국 계림으로 4박 6일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약속 시간인 오전 11시30분께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끊어버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여성앞에서 성기 내놓고 몸쓸짓

○심야에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종업원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서청.

○1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입모(25)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김모(여·20)씨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몸쓸 짓(?)을 했다는 것.

○임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몰고 도망갔으나 주변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에 차량 번호가 찍히는 바람에 발미를 잡혔는데, 경찰에서 “여자인구에게 잡자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여성종업원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했다”며 뒤늦게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현대인 누구나가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바라보다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물이 이쁘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윗구멍이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 교육일시: 2단계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단계 보수교육 2년 4회 이수 - 1회: 5월 10일(금) 오후 6시 ~ 10시
-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진리관
- 제출서류: 입학원서 www.ayce.co.kr 첨부자료 다운 kfce@hanmail.net 접수 문의: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 652-0675, 010) 8299-6237
- 교육비: 25만원 (입금계좌)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보수교육비 별도 1회당 5만원 및 자격검정비 별도/정서코칭 2급 5만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 특 전: 도래정서코칭지도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에 포함됨, 도래정서코칭지도사 과정: 정서코칭필수 + 교육2회, 임상 후 자격이수 정서코칭 + 아동가족심리상담사 두 강좌 접수시 혜택: 교육비 40만원

주관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kwangshin.ac.kr 후원 | fbc 광주동방송 www.fbc.net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2013-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